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가추법이 갖는 유용성*

이희은**

가추법은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논문은 문화연구의 방법론 논의가 연구방법이 아닌 인식론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가추법의 의미를 문화연구의 방법론의 측면에서 재해석한다. 논리학자이자 기호학자인 찰스 샌더스 퍼스는 연역법이나 귀납법으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명제나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 가추법을 제안한다. 근대의 과학적 실증주의가 객관성과 확실성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면, 가추법은 경험된 현상으로부터 새로운 전제를 찾아내는 발견의 논리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학문과 지식의 생산 구조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과학적 연구방법의 신화를 비판한다.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론적 대안으로서 가추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가추법이 문화연구의 방법론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이를 통해 문화연구가 방법론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 즉 ‘직관’과 ‘공감’과 ‘지적 협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탐색한다. 결국 문화연구는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부터 알 수 없는 실재를 찾아내는 발견의 논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주제어: 문화연구, 가추법, 방법론, 과학적 실증주의, 퍼스, 발견의 논리, 직관, 공감, 지적 협업

1. 문제 제기

이 논문은 지식생산 구조로서 문화연구가 갖는 의미를 방법론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의 방법론은 연구방법에 관한 도구적 관점이 아니라 연구주제와 방향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을 의미한다. 현재 주류 학문들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신화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사회과학이 맞이하는 정체성의 위기와 새로운 인식론으로서 문화연구가 갖는 방법론적 의미를 짚어본다.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은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가추법(abduction)’¹⁾이 문화연구에 던져주는 시사점이다. 가추법이 제시하는 ‘발견의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연구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문심사나 토론에서 ‘방법론은 무엇인가’ 혹은 ‘과연 방법론이 제대로 (과학적으로) 적용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실증연구를 하지 않은 연구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자아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러한 질문이 실증주의적 방법만을 유일한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질문에서

* 이 논문은 2009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helee@chosun.ac.kr)

1) ‘abduction’은 ‘추리법’, ‘귀추법’(김무길, 2010; 김영정, 2002; 박준호, 2005) 등으로도 번역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가추법’(Eco, 1988/1994; 김성도, 1998; 김주환, 2008) 혹은 ‘가추’(이기홍, 2008)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abduction’이라는 단어 자체는 1597년에 파키우스(Julius Pacius)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인 ‘아파고게’(apagoge, 대전제는 확실하지만 소전제는 개연적인 삼단논법)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다(Paavola, 2006). 하지만 이 말이 본격적으로 논리학에 등장하게 된 것은 퍼스에 의해서다.

말하는 ‘방법론(methodology)’이 사실상 ‘연구 방법(research method)’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연구는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서 방법론과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느끼는 당혹감으로부터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출발한다.

원칙적으로 방법론에 대한 질문은, 논문의 명제와 주장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였고 어떤 이론적 배경으로 논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왜 민속지학적 방법을 사용했는가’라는 방법론에 대한 질문은 ‘다섯 명을 민속지학적 방법으로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라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질문보다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어떠한 인식론적 관점을 가졌는가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방법이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화연구에 방법론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방법론적으로 설득력을 덜 갖춘 연구나 연구방법상 부적절한 문화연구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실증주의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문화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쟁이 계속되는 까닭은, 문화연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경험이나 미학적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과연 그 연구대상을 객관적으로 살펴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과학주의의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경험의 세계란 얼마든지 존재하며, 거기에서도 진리는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잘 보여준 것이 제목 때문에 종종 오해받곤 하는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1961/2000)이다. 이 책에서 가다머는 사실상 진리에 이르는 과학적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방법과는 무관한 진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우리의 역사적이고 미학적인 경험이 어떻게 과학적 방법을 넘어서는 진리를 매개해주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논문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것도 구체적인 테크닉으로서의 ‘방법’이 아니라 철학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방법론’이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방법론’의 사전적 정의는 ‘방법의 원칙에 대한 분석’ 혹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다. 철학적 용법으로는 ‘철학적 체계나 연구 과정에 대한 기본원칙과 구성 법칙’이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방법론은 수많은 연구가 행해진 후 사후적으로 분석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언제나 연구 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동반한다. 그런데도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어떤 실험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근대적 자연과학의 실증주의적 논리가 문화연구나 사회과학에도 차별을 두지 않고 적용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대상을 집어넣으면 결과를 뽑아내는 자판기 같은 연구방법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그 의미를 찾기도 어렵다.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는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대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그 네 가지란 (1) 가설연역모형(Popper, 1938; Hempel, 1966), (2) 귀납통계모형(Reichenbach, 1938), (3) 가추법 모형(Peirce, 1992; 1998; Hanson, 1958/2007) 또는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BE)²⁾, (4) 역사-사회구성주의모형(Kuhn, 1970; Lakatos, 1970)이다. 한국의 주류 인문사회과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방법은 이 중에서 가설연역모형(hypothetico-deductive model)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 보인다. 가설연역모형은 일반적인 현상 설명에 적합한 가설들을 이론의 후보로 내세우고, 이로부터 연역적 추론을 통해 그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한

2) 논리적 과정에 대한 퍼스의 글 자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때, 가추법을 ‘발견의 논리’(Hanson, 1958/2007)가 아니라 ‘정당성의 논리’(Harman, 1968)로 보는 입장이 IBE이다.

뒤, 시험과정을 통해 가설을 법칙이나 이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사회과학자들이 양적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계조사만 거치면 자연과학의 엄밀성이 획득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도, 이러한 가설연역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이 때 가설을 세우는 과정에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대상현실에 대한 관찰과 기존문헌 연구이다. 흔히 한국사회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서구의 이론을 가져다가 가설을 세우고 몇 가지 방법으로 논증해나가는 연구가 많은 것 또한 이러한 연구모형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설연역모형이 과연 과학적 연구의 전부이거나 과학적 연구를 대표하는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논쟁의 핵심은 뉴턴 역학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시대에 정립된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있다. 인간과 사회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입장에서는, 확실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현상들을 미리 예측하기는커녕 때로는 사후 분석하기조차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사회적 현상들이나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근대의 과학적 연구방법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론적 개발을 요구하는 징후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사이에서 여전히 학문적인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문화연구에게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는 더욱 절실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그로스버그(Grossberg, 1997)는 문화연구에 고유한 방법이란 없으며, 문화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답도 없다는 말로 이러한 고민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가 문화연구는 “맥락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한 것에서 방법론 논쟁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Grossberg, 1997: 264). 문화연구의 방법론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결론을 내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연구란 얼마나 잘 관찰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퍼스의 가추법은 문화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퍼스는 실용주의의 선구자이자 기호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기도 했다. 마치 오늘날의 컴퓨터를 예측이라도 하듯 언젠가 인간의 논리구조를 전기회로가 대신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던 그의 논의들은, 독창적이라는 평가와 사변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그가 주장했던 과학적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관찰되지만 기존의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제안한 가추법이란 겉보기에는 무관할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사실들의 합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철학적 논리 과정이나 컴퓨터에서 주로 쓰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퍼스는 우리가 많이 의지하는 논리이면서도 학자들로부터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가추법에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 가추법의 의미와 가추법의 문화연구적 적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출발했으며 현재의 학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 지식생산 구조의 형성과 ‘과학적 연구’의 의미 변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비해 뒤늦게 성립된 학문이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변화하던 서구 유럽 사회에 대한 연구들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과연 사회과학이 ‘과학’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Blaikie, 1993/2010).

사회과학보다 앞서 이미 고대 그리스와 이슬람 세계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발달해온 인문학과 자연과학도 처음부터 이러한 이름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 16세기 과학혁명을 통해 정립된 근대 과학이 중세의 불합리성이나 종교적 전통과 선을 그으며 엄밀한 과학적 사고를 통한 지식의 확실성을 강조할 때만 해도, 과학과 철학 사이의 구분은 명확치 않았다. 당시에는 과학자들도 자연철학 자리는 이름으로 불리었고 학문은 분과로 구분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이르러 소위 “철학과 과학의 결별”이 일어나게 된다(Wallerstein, 2004b: 20). 결별을 먼저 요구한 쪽은 경험적인 과학을 옹호하는 이들이었는데, 경험적 관찰에 의한 귀납적 이론화를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관찰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만 그 관찰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때부터 과학은 확실성의 지식이 되어, 과학 이외의 지식과 구분되기 시작한다. 한편 영어의 ‘humanities’,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 대학의 말로 하자면 ‘후마니타스(humanitas)’로부터 기원한 인문학은, 신학에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 지식이라는 일반적 범위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오늘날 인문학이 자연과학 우월주의의 대안인 것처럼 평가되기까지 하지만, 사실상 인문과학도 “유럽 연구 혹은 유럽적 인간의 연구”(사카이 & 니시타니, 2009: 29)로 출발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인문학 내에서 서구유럽의 인간과 역사를 다루면 주류 인문학이 되고, 그 외의 문화나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인류학이 되는 이분법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듯 자연과학에 비해 늦게 출발한데다 엄밀한 과학성을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회과학은, 뒤늦게나마 자연과학을 따라잡고자 확률적 법칙과 객관성이라는 밭줄을 더 강하게 잡게 된다. 사회과학이 보편법칙을 찾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인간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방법론상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치 근대 물리학이 자연적 과정에 조건을 설정하고 실험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태에도 조건을 설정한다면,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이 누리 고 있는 위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콩트(Auguste Comte)인데, 사회물리학(social phys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사회과학의 자연과학화를 주장했다. 그는 자연적 실재와 사회적 실재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없으며,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변동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물론 그 법칙을 발견하는 길은 반드시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과학 내에서 방법론적 일원론으로서의 실증주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의 지식구조는 스노우(Snow, 1965/2001)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두 문화’, 즉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양분된 구조이다. 스노우는 서구 사회의 지식 생산이 갈수록 양극화된다고 지적하면서, 한쪽에는 문학이 다른 한쪽에는 과학이 자리하여 서로 적의와 무지와 혐오로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개탄했다. 이 두 문화의 긴장 속에서 뒤늦게 구성된 사회과학은 독자적인 인식론적 관점을 개발하지 못한 채, 여전히 뉴턴 과학의 문화적 지배를 받으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는 두 문화의 틈새에서 힘겹게 존재해나가고 있다. 이때 사회과학의 입장을 힘겹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과학’이라는 개념이다. ‘과학’이라는 단어는 예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정도

로 그 의미가 광범위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과학은 때로는 공학이나 과학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술적 응용이 이루어지는 분야를 가리키기도 한다. 사회과학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또한 ‘과학’ 혹은 ‘과학적’이라는 의미에 대한 인식론적 오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학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과학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러한 수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학은 객관성을 지향하는 지식의 한 형태이다.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관찰한 결과를 체계화하는 등, 과학은 객관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과학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서는 과학적 지식체계를 비과학과 구분되는 확실하고 틀림없는 지식이라고 여겨왔다. 설령 현재의 과학 지식에 오류가 담길 수도 있고 과학이 진리 자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류는 수정되고 과학은 점점 진리에 수렴하며 진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이러한 실증주의적 과학관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학을 과학자 집단의 사회적 행위로 보는 관점이 대두하면서, 과학 역시 다른 지식들처럼 사회적 영향 속에서 구성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는 자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Kuhn, 1970; Lakatos, 1976; Lakatos, 1978). 대개 과학학(Science Studies) 또는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으로 통칭되는 이러한 제반의 흐름은 과학의 합리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서 분명한 위치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자연과학 내부에서부터 과학의 합리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시작된 이후에도,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과거 궤적을 충실히 답습하려 애쓸 뿐 자기성찰과 반성의 노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실증주의자들은 아직도 뉴턴 식의 물리학적 기계론의 패러다임에만 머물러 측정에 몰두하며 엄밀한 방법을 고수하려 한다. 사회과학에서의 방법론은 단순한 계산방법이 아니라 인식론(epistemology)으로서의 방법론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지식’ 혹은 ‘과학’을 의미하는 ‘episteme’와 ‘이성’을 뜻하는 ‘logos’가 결합된 ‘인식론’은 과학의 원리와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사회과학 내부에서는 과학적 방법론을 실증주의의 연구방법과 등치시키는 오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의 결과는 사회과학의 정체성에 두 가지 위기를 가져왔다. 첫 번째 위기는 사회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때를 놓치는 것이다. 버거(Berger, 2002)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과학자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으며 심지어 사후에도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네 가지 사건(사회주의의 붕괴, 1960~70년대 서구의 혁명, 동아시아의 대두, 세계적인 종교 운동 폭발)을 예로 들어 사회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20세기를 대표할 만큼 중요한 이 사건들을 예측하거나 사후에라도 제대로 설명한 사회과학자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를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문제점에서 찾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미국 중심의 사회학에서는 여전히 ‘양화될 수 없는 것은 연구될 수 없다’는 원칙이 기본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앞의 사례와 같은 큰 문제들을 연구 주제로 제시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이 맞이한 두 번째 위기는 과학적 방법 자체를 섬기느라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종의 ‘방법 물신주의(fetishism of method)’(Berger, 2002; 최종렬, 2009)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위기로 인해, 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윤리적 고찰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학문적 풍토가 생겨났다. 벤카테시(Venkatesh, 2008/2009)는 연구자들이 정작 사람을 만나는 데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학문적 풍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연구자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대상과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행위를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이며 편견을 불러오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과학적 방법에 대한 사회과학의 이러한 오해, 즉 방법 물신주의가 사라져야 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시대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우선 복잡계 과학시대의 도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사고나 행위는 단순한 모형에 따라 정형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정보가 흐르고, 비선형이나 공진화 등의 변화도 생긴다. 자연과학은 물론 일부 사회과학에서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예를 들어 강양구 외, 2010; Prigogine, 1996/1997). 또한 학제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근대적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이미 벌어지고 있으며, 미래는 융합학문과 인간의 종합적인 인지능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예를 들어 김광웅 외, 2009). 한국에서 대부분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신문방송학 역시 과학주의에 대한 오해를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길호(2005)가 지적하듯이 이론화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연구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한다.

3. 문화연구의 방법론과 루브 골드버그 장치

사회과학의 위치와 관련된 방법론의 논쟁 속에서, 방법론적 단일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지식 구조의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자연과학에서는 복잡성 과학을, 인문학에서는 문화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복잡성 과학과 문화연구의 출발 지점은 서로 다르지만, 두 학문 모두 근대 자연과학의 기본 전제에 도전하면서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새로운 학문들이 새로운 전제로 내세운 것은, 미래는 근본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의 보편성이라는 것도 사실상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연구의 등장이 던진 방법론적 의미는 무엇일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복잡하게 벌어지는 사회 현상과 경험들을 실재하는 과거의 원인들로 단순히 환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사회과학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확실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지 못했었다. 과학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를 찾는 것을 사회과학의 목표로 여겨서, 그 틀에 따라 답을 구하기 쉬운 연구 문제들을 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질문을 던져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입증할 방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었다. 문화연구의 등장이 가져다준 방법론상의 두 번째 의미는 제도화된 인문학의 도그마를 비판했다는 점이다. 문화를 ‘총체적 삶의 양식’(Williams, 1961/2007)으로 이해하는 문화연구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그 의미는 사회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텍스트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문학의 자율성과 완결성을 논하던 인문학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권력과 이데올로기와 인종 문제 등이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의미는 문화연구가 ‘사회학은 사회를 탐구하고 인문학은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한 서구 중심의 지식생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과학적 연구방법이 인간 행위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두고, 연구자와 연구대상과의 거리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콩트로부터 유래한 실증주의와 딜타이(Dilthey, 1910/2009)의 반실증주의 사이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사회과학의 방법론 논쟁이 대표적이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에서 유래된 엄밀한 객관성을 통해 사회과학의 과학적 입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반면 반실증주의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사회현상과 인간의 행위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자연현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적 연구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의 차이는 결국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연구방법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 학자들은 문화연구가 인식론적이나 철학적으로 방법론의 새로운 기틀을 제시했다고 설명한다(윤택림, 2004; Alasuutari, 1995; Couldry, 2000; Gray, 2003; Grossberg, 1997; Hartley, 2006; Peters, 2006). 그러나 이들은 특정 학문 분과에 명확히 포섭되지 않은 문화연구가 방법론의 문제에서 늘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과학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신화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문화연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연구의 이러한 딜레마는 학계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루브 골드버그 장치’에 비유해 설명할 수 있다. 루브 골드버그 장치란 미국의 만화가이자 엔지니어였던 루브 골드버그(Reuben L. Goldberg)의 만화 시리즈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만화는 아주 단순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복잡한 장치를 사용하는 기계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1930년대 미국의 기술문명사회를 풍자하는 의미로 널리 회자되었다. 루브 골드버그 장치는 복잡하게 얽힌 부품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치로 인해 절차의 중요성이나 협력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얻는 결과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차피 얻을 수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대로 복잡한 장치를 사용하는 이 기계의 우스꽝스러움은 현재 학계에서 지배적인 논문생산 시스템과 많이 닮았다.

루브 골드버그 장치가 과학적 절차라는 신화에 얽매어 결과를 산출해내야 하는 20세기 초 기술사회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신자유주의의 실용성과 과학적 실증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재의 지식생산 과정은 학계의 루브 골드버그 장치처럼 보인다. 이러한 지식생산 구조 하에서는 연구의 질적인 도약보다는 양적인 축적이 더욱 중시되고, 당연히 연구자들이 받게 되는 논문 생산의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자본과 권력의 이데올로기적인 압력 때문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시스템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계에서는 많은 학문적 사기극이 벌어졌고 특히 가장 정교해야 할 것 같은 의학계에서 일어난 속임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Baillargeon, 2006/2010: 256-257, Judson, 2004). 대표적인 속임수는 자료조작인데, 시간에 쫓기는 논문 출판의 압력 때문에 의심스러운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학문 내부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연구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 때문에 과학적 사기극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연구는 대만 정부가 소위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순위를 단기간에 올리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정량화하기 쉬운 과학 분야의 연구에 재정적 지원을 몰아주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Huang, 2009). 이러한 대만 정부의 정책은 학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여, 국제적인 정량 평가에 유리한 일부 분야의 논문은 과다 생산되는 반면 양적 평가가 어려운 분야의 연구는 전혀 없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만의 사례는 최근 한국의 사례와 많이 닮아있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 담배회사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담배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등의 유명한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의 수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정부와 제도와 동료들로부터 외적인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자체 검열 형태의 내적인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Wallerstein, 2004a).

결국 연구 논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요구하고, 서구 위주의 정량 시스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적 형식과 유용성까지 요구하는 것이 현재 루브 골드버그 장치처럼 작용하고 있는 지식생산 구조의 현실이다. 잘못된 과학주의에 대한 맹신이 불러온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개별 논문의 연구방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된 연구결과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등가고환할 수 없는 지식이나 발견을 등가고환하려는 자의적인 시스템이 사회과학은 물론 문화연구에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생산에 제도적으로 관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이라는 신화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자의 기준으로 연구를 평가하게 만든다. 구체가 아닌 보편의 기준으로 유용성을 평가하게 만든다. 중요한 질문이 아닌 작은 엄밀함으로 연구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의미에 대해 눈을 감거나 심지어 왜곡할 가능성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화연구가 지향하는 구체성과 총체성의 의미를 방법론적으로 더 정교화할 수는 없을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답을 구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론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러한 고민에서부터 가추법에 대한 논의는 시작된다.

4. 퍼스의 가추법

퍼스는 미국의 철학적 사조인 실용주의(프래그머티즘)를 일으킨 사람이자 하버마스 등의 화용론적인 철학에 영향을 준 기호학자이기도 하다. 그의 기호학은 기존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전통적인 학문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퍼스는 과학적인 탐구 방법에 관한 철학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는데, 탐구란 의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믿음의 고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옳은 전체에서 옳은 결론이 나온다면 좋은 추리가 되지만 옳지 않은 전체에서는 아무리 좋은 결론이 나온다 해도 좋은 추리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다 (Peirce, 1992: 111-113).³⁾ 고정된 믿음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후의 탐구과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퍼스에게 과학적인 탐구란 철저하게 경험적인 과정이다. 여기서 퍼스가 말하는 ‘경험’은 경험론자들의 정의와는 다르다. 경험론을 계승한 논리실증주의에서는 검증가능성이 있는 명제만이 과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 논리실증주의 내지 논리경험주의에서 경험은 믿음이나 이론과 독립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퍼스가 보기에 관찰과 경험은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의 토대가 아니다.

퍼스가 제시하는 과학적 방법의 핵심 개념은 가추법이다. 퍼스는 귀납법이나 연역법과 달리 가추법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용어를 번갈아 사용했다. 초기에는 가설법(hypothesis)이란 말을 사용했으나, 후기로 가면서 가추적 추론(abductive inference) 혹은 그냥 가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때로는 ‘retroduction’이나 ‘posteriori inference’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했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 때문에, 퍼스가 글을 쓴

3) 퍼스가 남긴 글들은 여러 가지 판본으로 편집되어 책으로 출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퍼스의 글들을 두 권으로 나누어 묶어낸 *The Essential Peirce* 1권과 2권을 기준으로 인용하였다. 1권은 1992년에, 2권은 1998년에 출간되었다.

이후로 다시 몇 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퍼스의 가추법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예를 들어 Eco, 1988/1994; Hanson, 1958/2007; Reichertz, 1991 등)

가추법은 경험할 수 있는 결과로부터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나아가는 추론이다. 퍼스에 따르면, 가추법은 설명가설(explanatory hypothesis)을 형성하는 과정(Peirce, 1998: 235)이며 사실을 관찰한 후에 어떤 관념이 그 사실을 일으킨 것인지에 대해 주장하게 하는 사유 작용이다. 세상에는 이제까지 알려진 지식이나 관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관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 가추법은 출발한다. 도대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관찰될 때, 그에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인과관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의 전체에 담겨있지 않은 새로운 전체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전체를 찾는 개연적 추리 과정이 가추법이다. 이 추리과정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추법의 논리적 구조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류는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퍼스는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추법만이 과학적 창의성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퍼스가 말한 가추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Peirce, 1998: 231).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만일 H(설명가설)가 옳다면, C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따라서 H가 옳다고 짐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C는 우리가 관찰하는 현실이다. 이는 일상생활의 한 국면일 수도 있고 양적 데이터일 수도 있다. 예컨대 유명인에 대한 안티 카페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일까? 한국의 10대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들이 과잉 개입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들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사회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분명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에 알려진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그런 후에 새롭게 알아낸 H로 우리가 관찰한 C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것이 가추법의 기본 과정이다. 여기에서 가추법을 과학적 논리로 만드는 요건은, H가 얼마나 진리에 가까우며 일반적인가가 아니라 H를 전제로 수용할만한 좋은 이유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C가 발생했을까? 발견한 H는 C와 같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명제가 될 수 있을까? 이 때 가추법은 ‘발견의 논리(logic of discovery)’로 작용한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절차를 거치면서도 새로운 영감과 지식을 깊게 탐구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오늘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교육학, 기호학, 범죄학, 인공지능학, 사회학 등)에서 새로운 지식의 발견 도구로 가추법을 원용하고 있다. 가추법은 기계적으로 가설을 추리해내는 절차적 방법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진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논리학자들이 가추법을 과학적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방법에 대한 현대의 지배적인 견해인 가설연역모형에 따라,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은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포퍼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과학적 발견에는 논리가 없다고 주장한다(Popper, 1959/ 1994). 가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과학철학이나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질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을 구별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한 라이헨바흐(Reichenbach, 1938)는 발견과

정에 대한 인식론적 관심을 부정하지 않았다. 피스의 가추를 발전시킨 헨슨(1958/2007)도 가설연역이나 귀납은 모두 이미 완결된 연구 보고서에나 적당한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방법론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절차는 새로운 발견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으며, 피스의 가추법이 지향하는 발견의 논리야말로 진정한 인식론의 주제라는 주장이다.

피스가 연역과 귀납과 가추 중에서 오로지 가추만이 진정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논리라고 주장한 까닭은 무엇일까(<표 1> 참조). 먼저 귀납법은 데이비드 흄이 지적한 귀납의 역설에 직면한다. 즉 귀납적 추론은 수집된 사례들이 아무리 참이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얻어낸 규칙이 참임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사소한 반례만으로도 추론된 규칙은 무너진다. 한편 연역적 추론은 참인 전제들로부터 언제나 참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이지만 추론의 결과는 언제나 출발점인 규칙 속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와 달리 가추적 추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서 귀납의 역설을 만나지 않으면서도 규칙과 결과로 이루어진 전제들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설명적 가설을 형성한다. 이는 일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되어 가는 점진적 과정이다. 피스는 연역이 ‘틀림없이 그러함(must be)’을 증명하고 귀납은 ‘실제로 그러함(actually is)’을 보여준다면, 가추는 ‘그럴 수도 있음(may be)’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Peirce, 1998: 216). 따라서 가추법은 새로운 가설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설이 얼마나 다른 경험적 관찰에도 들어맞는지 판단해주는 과정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표 1> 연역법, 귀납법, 가설법의 추론 형식 (Peirce, 1992: 188의 내용을 재구성)

연역법(deduction)	귀납법(induction)	가추법(abduction)
규칙: 이 자루 속의 모든 콩은 희다.	사례: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	규칙: 이 자루 속의 모든 콩은 희다.
사례: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	결과: 이 콩들은 모두 희다.	결과: 이 콩들은 모두 희다.
∴결과: 이 콩들은 모두 희다.	∴규칙: 이 자루 속의 모든 콩은 희다.	∴사례: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을 것이다).

가추법의 절차에 따르면 결론을 완전히 확정하거나 명제를 입증하기란 어렵다. 다만 현재 어떤 현상이 관찰된다는 점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김주환(2008)이 적절히 설명하듯이, 가추법은 지적인 훈련을 받은 논리학자나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행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젖은 땅을 보면 비가 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식당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으면 음식을 잘하는 집일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일상적인 가추에는 오류가능성이 있다. 젖은 땅은 물청소를 한 흔적일 수 있고, 식당 앞의 줄은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가벼운 형태의 가추법일 경우이다. 조금 더 지적인 노력을 동원하면 일상적인 전제가 아닌 아주 새로운 전제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가추를 논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것을 특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고 치자. 이 혼란스러운 데이터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된다. 그런 후에야 수집한 경험적 데이터들이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해줄 새로운 가설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연역법은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반면 그 결론이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 이미 알려져 있는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반면 가추법은 퍼스가 말하는 ‘놀라움’을 선사한다. 위의 사례를 다시 예로 들자면, 젖은 땅은 알고 보니 사고의 현장을 은폐하기 위한 물청소 흔적일 수 있고, 식당 앞의 줄은 언론의 맛집 프로그램에 그 식당이 소개되어 생긴 갑작스런 현상일 수도 있다. 이처럼 가추법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논리적 위험성을 갖지만, 이미 알려진 것(결과)에서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법칙과 사례)를 발견하는 놀라우리만치 지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추는 “발견의 논리(logic of discovery)”(Hanson, 1958/2007)이며, “지적인 도약(mental leap)”(Reichertz, 2010)이고, “창조적인 도약(creative leap)”(Wuisman, 2005: 380)이며, “어둠 속의 도약(leap in the dark)”(Kripke, 1982, 고진, 1998에서 재인용)이다. 이처럼 ‘발견의 논리’로서 가추법은 무엇이 ‘과학적’ 연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준다. 즉, 과학적 탐구란 단순히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뛰어드는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가라타니 고진(1998)의 말처럼, 모든 학문은 도약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으며, 도약은 맹목적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신비롭다.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연역법과 귀납법의 선형적인 성격을 따른다. 자연과학에서는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가설을 구축하고 이 가설로부터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을 얻어내어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가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거나 시험의 과정 자체가 축약 또는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주의 원칙을 내세우는 모형에서 이미 도달할 목표는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이 목표를 증빙할 사례조차 미리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귀납통계모형에서는 관찰된 사례들로부터 통계적 개연성을 고려한 일반적 규칙을 추론하는 과정에 주목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추론과정 자체는 방법론의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과학의 논리 안에서, 사회과학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만을 생각하려고 하고 “나는 왜 이 사람을 선택하여 이해하려고 하는지,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곤 했다(신항식, 2007: 162). 또한 실재와 표현, 본질과 현상, 보편과 특수, 규칙과 사례의 짝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항상 전자에 더 무게를 두어왔다. 반면, 퍼스의 가추법은 실재, 본질, 보편, 규칙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표현, 현상, 특수, 사례들이 얼마나 의미가 복잡하며 단순한 법칙을 찾기 힘든 것인지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거나 참여한 20대가 크게 증가했다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그들의 트위터 사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현상을 다시 서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20대의 투표가 전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 그들의 트위터 사용이 크게 눈에 띄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던 20대가 트위터라는 비교적 단순한 기술에 반응하는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전제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퍼스의 가추법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곤 하는 사례가 설록 홈즈다(예를 들어 Sebeok, 1981; 김주환 2008). 설록 홈즈는 “난 절대 추측하는 게 아니야.”(『네 사람의 서명』 중에서)라며 자신의 추리 과정을 비밀에 붙인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사실보다 더 속기 쉬운 것은 없다.”(『설록홈즈의 모험』 중에서)는 말로, 관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자연과학과 달리, 설록 홈즈와 같은 탐정이 범인을 찾거나 미술 감정가가 위작을 가려내는 방법은 매우 적은 사례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탐정과 감정가에게 경험에서 우러난 직관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는 문화연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일은 항상 예고 없이 벌어지고, 각 현상의 의미는 그 자체로 특수하여 보편화하기 어렵다. 선거에 대한 이론은 많지만, 그럼에도 선거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산업적 논리에 따라 정교하게 기획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은 의외의 상황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2008년 촛불정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던 것은 놀랍게도 10대 소녀들이었다. 이러한 수많은 현상들은 발생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지만, 그 현상들을 설명할 적절한 체계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가져다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록 홈즈가 추리를 통해 감쪽 놀랄만한 방식으로 범인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문화연구에 임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기추법이 문화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5. 방법론으로서의 문화연구: 레이먼드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문화연구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방법론의 취약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에 대한 문화연구자들의 반응은 문화연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문화연구에서 방법론적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문제일까라는 지적에서부터(White & Schwoch, 2006), 한 발은 증거와 구체를 탐구하는 실증연구의 캠프에, 다른 한 발은 구체를 감추고 있는 구조를 탐구하는 연구에 담고 있는 것이야말로 문화연구의 특징이라는 입장(Hartley, 2006)까지, 문화연구에서의 ‘방법’이란 실재론과 구성주의를 아우른 아말감과 같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반면 콜드리(Couldry, 2000)는 ‘문화연구의 방법론 상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자신의 책에서, 문화연구가 어떤 주제를 연구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방법’의 의미로 사용한다. 문화연구의 방법에 대한 그의 잠정적인 답은 ‘실증연구를 확장하여 현대사회의 복잡한 권력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에 방법론이 없다거나 문화연구가 방법론 때문에 위기라거나 하는 담론이 생산되는 이유는, ‘방법’을 단순히 일련의 기술적 테크닉으로만 보는 시선 때문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테크닉’을 갖지 못한 문화연구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그러나 피터스(Peters, 2006b)에 따르면, 방법론은 경험이 매개하는 진리로 향해가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는 방법론의 문제란 수많은 연구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후적으로 다듬어진 체계라는 점에서 언제나 자기성찰적이라고 주장한다.⁴⁾ 그가 헤겔의 문구를 원용하여 “방법의 부영이는 황혼에만 날개를 편다.”(2006b: 54)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방법론에 대해 알 수 있는 순간은 언제나 최후에 찾아온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피터스에게 방법론이란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것, 즉 과거를 불러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과거와 세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라는 것이다(Peters, 2006b: 54-55). 피터스는 문화연구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연구야말로 현재의 현상과 과거의 실재를 매개하는 양식으로서의 문화와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진, 방법론적으로 의미가 큰 연구라고 평가한다. 피터스가 어떻게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윌리엄스의 저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피터스는 이 논문에서 ‘방법론’이 아닌 ‘방법(method)’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인식론적 측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문화와 사회』(Williams, 1958)에서 18세기 산업혁명 직후의 영국 지식인들이 ‘문화’라는 개념의 생산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20세기 후반의 ‘문화’라는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과거의 실재를 분석하여 현재의 현상을 이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윌리엄스의 입장은 그의 책 서문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 책의 구성 원칙은 일반적인 현대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문화’라는 아이디어와 그 단어 자체가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적 사고에서부터 출발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Williams, 1958: 11)

이 서문은 삶의 총체적 양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이론화하여, ‘문화’라는 개념의 일반적인 이론을 새로이 정립하겠다는 윌리엄스의 방법론적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윌리엄스는 위의 인용문에 바로 뒤이어 ‘산업’, ‘민주주의’, ‘계급’, ‘예술’, ‘문화’라는 다섯 가지의 핵심어를 제시하면서, 1780년부터 1950년 사이의 영국 사회에서 문화라는 개념의 변화를 살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문화적인 분석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전까지 통용되던 부르주아의 ‘문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대신 학자들이 높이 사지 않던 일상 문화(비록 노동계급의 문화나 영국 이외의 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라는 모호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원래 ‘경작(cultivatio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문화(culture)’라는 기표에 삶의 과정이나 정신체계라는 기의가 부여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윌리엄스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화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우리가 공통으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변화하는 데 대한 우리의 반응이 생각과 느낌으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의미하는 문화란, 우리의 산업과 민주주의가 명시적으로 정의한 대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Williams, 1958: 285)

따라서 문화란 그 출발 지점이나 작용에 관여하는 요소들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는 고유한 색채를 띠게 된다. 이처럼 윌리엄스는 이전까지 영국 사회에서 지배적이던 부르주아적인 문화의 정의를 거부하고, 그가 관찰하는 보통 사람들의 현실적 문화로부터 새로운 전제와 역사적 조건들을 발견해낸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가추법의 ‘발견의 논리’에 부합하는 탐구 과정으로써, 윌리엄스의 문화연구가 왜 방법론적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윌리엄스의 『키워드』(1985/2010)를 살펴볼 수 있다. 원래 『문화와 사회』의 부록으로 기획되었던 이 책에서, 윌리엄스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들을 이 책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그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자기의 연구 주제를 명백히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방법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념사의 측면에서 이 책을 평가한 나인호(2010)는, 의미들의 문화적 구성 문제를 정교하게 주장하고 사유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키려는 윌리엄스의 신념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윌리엄스는 어떤 인식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라는 용어의 기존 쓰임새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주장하는 방법론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열쇠는 윌리엄스의 또 다른 저작인 『기나긴 혁명』(1961/2007)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 궁금한 문제, 즉 문화와 사회와 민주주의와 개인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기존의 학계 내에서는 얻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질문하거나 대답을 탐구할 수 없도록 구성된 영국의 교육 커리큘럼을 크게 비판한다. 이러한 윌리엄스의 입장은 퍼스의 가추법이 강조하고 있는 경험 관찰을 통한 새로운 가설 발견의 논리와 일치한다. 현재의 관찰로부터 출발하여 과거에 ‘실재’했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추법의 인식론적 핵심이기 때문이다.

윌리엄스 이후에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화의 개념을 정립한 또 다른 학자로 기어츠(Geertz, 1972)를 들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사회와 문화는 과학적이고 객관주의적인 방법만으로는 제대로 규명하기 힘든 의미로 가득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과학 내부에 만연해 있던 과학만능주의를 비판했다. 오르너(Ortner, 1999/2003)는 이러한 기어츠의 노력으로 인문학의 변방에 있던 인류학이 그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입장이 실증주의자들로부터는 지나치게 해석에 치우친 점 때문에 그리고 비판이론가들로부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사학자인 슈얼(Sewell, 1999/2003)은 기어츠에게 쏟아지는 비판의 상당수는 그가 비과학적이라거나 관념적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방법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 즉 문화적 과정을 공시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텍스트로서의 내적 논리만을 추구하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비판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타학문(특히 역사학)과의 협업을 멋지게 이루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슈얼이 보기에 문화란 필연적으로 어떤 공시적인 순간을 동반하게 마련인데, 이러한 공시적 분석은 통시적 순간(역사)과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물론 기어츠의 연구에서 통시성에 관한 논의는 거의 생략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통시성을 탐구하는 역사가들의 노력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6. 문화연구의 가추법적 방법론: 직관, 공감, 협업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고 새로운 지식생산 구조가 요구됨에 따라, 가추법은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전 지구화를 겪으며 국가나 민족 등의 전통적인 단위가 경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Gunaratne, 2010; Wallerstein, 2004a, 2004b), 디지털 시대의 도래 등 우리의 경험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변화를 맞아 인식론의 재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김주환, 2008; 신항식, 2007; 주형일, 2008; Peters, 2006b).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가추법을 기준으로 질적 연구방법의 의미를 고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라이헤르츠(Reichert, 2010)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Strauss & Corbin, 1997)에서 가추법적 의미를 찾는다. 모든 연구는 결국 효과적인 질문을 찾아 물어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근거이론의 전제가 가추법의 발견의 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가(Agar, 2006)는 가추법의 발견의 논리를 적용하여 민속지학적 방법을 평가한다. 그는 반복가능성이나 확실성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지의 여부로 민속지학적 방법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문화연구에 가추법을 적용하면서도 가추법에 내재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태도는 무엇일까? 만일 오류 가능성만 줄일 수 있다면, 문화연구에서 가추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직관과 상상의 적극적인 사용. 둘째, 공감의 태도. 셋째, 지적 협업이 그것이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추법을 행하는 절차의 논리적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가추법이 방법론적 논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발견의 논리로서 가추법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직관이다. 직관이란 사전적으로는 경험·판단·추리 등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일상적으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경험적 느낌에 따라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직관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직관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실증주의에서 직관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은 현상을 목격할 때, 즉 현재의 사건으로부터 과거의 실재를 추론할 때 직관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능력으로서의 ‘직관’을 주목한 베르그송은 공간적 사유에 묶여 있는 지성으로 시간적 현상인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Bergson, 1992). 그가 말하는 직관은 본능적인 것도, 매개되지 않은 직접적 지각도 아니다. 오히려 우주의 진상(眞相)을 깨닫는 것이며, 지적인 공감 능력이다. 즉, 대상을 외부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자신을 투영하여 그 대상만이 지니는 특수한 절대성을 공감하는 태도이다.

원용진(2005)은 문화연구의 궤적을 살펴본 논문에서 문화연구를 커다란 연장통에 비유한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절대적 이론은 아니지만, 문화연구는 그 안에 수많은 연장들을 담고 있어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연장통이라는 비유는 가추법의 직관이 문화연구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적이고 지적인 직관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연구자라면, 사회의 이곳저곳에 튀어나온 못을 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망치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다. 튀어나온 못의 크기와 강도와 휘어짐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과거에 사용했던 망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만일 적절한 망치가 없다면 다른 연장을 망치 대신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능동적으로 고민할 것이다. 이때 연장통 속에는 이왕이면 더 많은 도구들이 들어 있어서 적절한 쓰임새를 기다린다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원용진이 논문에서 설명한 “능력의 확장”(2005: 185)일 것이다. 이때의 능력은 기술의 연마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은 시간에 따라 반드시 순차적으로 쌓이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껏 연장통 속에 머물러 있던 실재로서의 이론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퍼스는 관찰한 현상에서 놀라운 전제를 발견하는 일이란 섬광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직관과 상상력을 통한 놀라운 발견을 강조했다. 문화연구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현상들은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거리를 허우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느닷없이 나타나 그 원인을 파악할 시간조차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직관이라는 도구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가추법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공감의 태도이다. 이는 직관으로 파악한 관찰 결과가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가추는 실험과 달리 논리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나 변인을 통제하지 않는다. 연구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문화적 양상들을 관찰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에 방해되는 요소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나 타당하지도 않다. 이 때의 우연을 과학적 전제로 만들어주는 것은, 지적이고 감각적인 공감 능력이다. 윤택림(2004)이 지적했듯이,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의 말이나 몸짓이나 감정 등을 직접 인용하여 연구에 사람의 냄새가 배게 하는 것은 실증주의 연구에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질적 연구만의 특징이자 장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가추나 직관에 대한 연구는 철학 이외에도 간호학이나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주형일(2008)의 지적처럼 직관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수량화하여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렵다는 성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추법은 우리가 관찰한 경험이나 현상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영주와 조세훈(2004)이 사람들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를 멈추지 말 것과 관찰자적 시선을 거둘 것을 요청한 점도 이러한 공감의 태도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실에 개입하는 문화연구가 되려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문화현상을 객관화하거나 대상화하지 말고 직접 그 안에 뛰어들라는 공감의 태도를 촉구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때 문화연구가 현실과 맺는 밀접한 관계 때문에, 공감의 태도를 직접적인 현실참여만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환원하는 시각들도 있다. 그러나 이상길(2004)은 공감이 반드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문화연구의 의미 있는 경험적 사례들을 계속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개념과 이론의 발견과 연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책상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신의 연구와 담론이 기반하고 있는 현실의 모순과 적합성을 철저히 성찰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가추에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지적 협업이다. 퍼스는 가추라는 방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위기에 닥칠 때나 무얼 할지 알 수 없을 때, 현상은 벌어졌으나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추법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가추적 과정이 곧장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추적 추론은 그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한데, 이처럼 가추법의 과정이 계속 이어져서 통시성을 획득할 때 문화연구의 지적협업은 이루어진다. 이상길(2004)은 문화연구자들의 성찰이 더욱 정교하게, 집단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날 때 문화연구의 개입이 의미를 획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연구의 탈식민적 글쓰기를 통해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을 설명한 전규찬(1997), 그리고 학제간의 경계와 오해를 풀고 장기적인 실천을 해나갈 필요성을 주장한 원용진(2005)과 류용재(2010)의 주장도 모두 이러한 지적 협업의 방법론적 의미를 강조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가추법은 변칙적인 현상이나 결과들이 잠정적인 가설을 찾아내는 데 정보나 힌트를 제공하는 ‘논변의 망(web of arguments)’(Paavola, 2006: 97)이기도 하다. 하나의 가추는 오류의 가능성이 많지만, 가추의 망이 연결되면 오류의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든다. 끊임없는 관찰과 이론의 재검토를 통해서만 가추법은 비로소 방법론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지속적인 성찰과 협업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유지할 때에만 문화연구는 그 학문적 위치를 다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헨슨(1958/2007)이 의미하는 ‘발견의 패턴’이기도 하다.

아감벤(Abamben, 1996/2009)의 말처럼, 사유의 경험이란 항상 공통된 역량의 경험이다. 우리 안에 잠재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소통은 이미 현실로 드러난 공통의 소통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통가능성으로서의 소통이다. 여기서 아감벤을 굳이 인용하는 이유는, 그가 말한 ‘사유’라는 개념이 문화연구에서 말하는 ‘맥락’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감벤은 개인의 정신적 능력을 일컬어 사유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사유란 “삶과 인간 지성의 잠재적 성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험/실험”(Agamben, 1996/2009: 20)이다. 모든 소통은 (이미 현실태로 있는) 공통의 것의 소통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통가능성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집단적인 협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베커(Becker, 1986/1999)가 던진 흥미로운 조연을 참조할 만하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주는 충고의 형식으로 된 『사회과학자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연구 논문의 글이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한심하고 결함 많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학문적 삶의 조직체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라고 충고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연구에 ‘방법적으로’ 부족한 논문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자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논문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은, 거꾸로 그 사회가 그런 논문을 덜 준비된 채로 세상에 나오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고, 학자들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향해 비판의 칼을 겨냥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완결된 논문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소통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연구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읽어내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는가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맺으며

광우병, 신종플루, 구제역 등 새롭게 등장한 질병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다. 한센병이나 흑사병의 경우처럼, 이러한 질병의 치료나 예방법이 과학적으로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반복해서 검증하고 안정성과 확실성을 획득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이 질병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너무나 크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우병은 식량주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했고, 신종플루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독점 문제를 수면에 떠오르게 했으며, 구제역은 보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책적 살상의 문제를 비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학적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연구 주제들이다. 정확하고 엄격한 과학적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또한 사회적 맥락에서 번져가는 공포와 통제의 현상에 문제 제기를 해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학주의의 신화에 빠져 사회과학이 침묵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

물론 과학 덕분에 우리가 자연 현상이나 세상의 의문들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점은 사실이다. 실증주의 연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회 현상들은 규칙성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전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엄밀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많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대답하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과학과 문화연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 현미경, 망원경, 기차, 전신,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등과 같은 과학적 발견이 단순히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까닭은, 이들이 우리가 이전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막연히 저 멀리 가닿고 싶거나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욕망, 혹은 아주 작은 것의 실체를 알고 싶거나 멀리 있는 사람과 인사 나누고 싶다는 희망이 이 기술들의 발전과 사용을 가능케 했다. 과학과 과학적 연구의 혁명성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의문을 만들어내고 그 의문에

답하는 과정에 있다.

19세기 이후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엄밀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따라잡으려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사회는 기계적인 안정성에 의존하는 뉴턴 식 세계가 아니다. 피터스는 자연이란 진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다양하다는 퍼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과학적 탐구란 “이미 알려진 것을 뛰어넘는 지적인 도약”이라고 정의한다(Peters, 2006a: 218). 그는 가능한 모든 가설들을 검토해보고 나서야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과학을 따분하고 멍청한 짓으로 만든다고 비판한다. 자연이 그렇듯 지적인 연구도 느닷없이 한꺼번에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학적 탐구란 사회나 문화 현상들의 경험을 판별해내고(직관), 그에 적절한 가설을 추론하여 그 존재를 확인하고자 노력하며(공감), 그렇게 발견한 실재를 사유 속에서 재구성하고 보완하는(협업)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과학적 탐구로서 가추법은 유용한 방법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용한’이라는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지만 퍼스의 입장에서 볼 때 방법론적 유용성이란 양화될 수 있는 객관적 진리 축적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더 낮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윤리적 태도에 가깝다(이유선, 2010). 결국 문화연구가 지식생산에서 갖는 유용성은 단순히 기존의 문제들에 실증주의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유도해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연구가 예측 가능한 문제만을 제기하고 예측 가능한 결론을 되풀이하는 타성에 젖게 된다면, 문화연구가 비판하던 실증주의 과학적 연구와 다를 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앵(Ang, 2005)의 말처럼, 문화연구란 사회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지식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이나 통합이 단순히 차이의 가치를 절하하고 방법론적 유일주의만을 설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학문적 통일이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이중성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아인슈타인과 피카소가 세상의 복잡함을 그대로 끌어안음으로써 자연과 현실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냈듯이(Fischer, 2005/2010), 학문적 타자의 잠재성을 인정할 때에만 소통은 이루어진다(Peters, 2006a; Silverstone, 1999/2009). 소통되지 않는 방법론은 의미가 없고, 기술적인 절차만을 따지는 방법론은 편협하다. 가추법은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을 감각을 활짝 열어 관찰할 것과, 그 관찰에서 총체적인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의 의미를 탐구할 것을 일러준다. 이것이 가추법이 문화연구에 적용될 때의 방법론적 근거이다. 문화연구가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수행해야 할 과학적 연구방법이란 결국 삶의 풍부함을 바라보고 그 놀라움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윤리적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길호 (2005). 과학적 연구방법과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이론화.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2호, 1~38.
- 강양구 외 (2010). 『불확실한 세상』. 사이언스북스.
- 김광웅 외 (2009).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생각의 나무.
- 김무길 (2010). 퍼스의 실재론적 프래그머티즘과 탐구 논리. 『교육철학』, 48집, 1~22.

- 김성도 (1998). 가추법의 화용론적 함의. 『담화와 인지』, 5권 2호, 23~40.
- 김영정 (2002).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인지과학』, 13권 4호, 81~90.
- 김주환 (2008).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생각의 나무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 류용재 (2010). 담론분석과 정치경제학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커뮤니케이션 질적 연구방법론의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8권 4호, 37~73.
- 박준호 (2005). 퍼스의 귀추와 가설의 방법. 『범한철학』, 37집, 65~85.
- 송승철 (1997). 문화연구는 인문학의 대안인가. 『인문과학연구』, 5집, 427~437.
- 신항식 (2007). 소쉬르와 퍼스의 인식론 비교: 디지털 시대 실재와 주체의 문제를 통해 본 두 사람의 인식론이 지닌 의미에 관하여. 『기호학연구』, 21집, 159~188.
- 원용진 (2005). 언론학 내 문화연구의 궤적과 성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1호, 163~190.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기홍 (2008). 사회연구에서 가추와 역행추론의 방법. 『사회와 역사』, 80집, 287~321.
- 이상길 (2004). 문화연구의 아포리아.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79~110.
- 이유선 (2010). 실용주의 철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동서사상』, 8집, 51~84.
- 이영주, 조세훈 (2004). 한국 언론학에서의 문화연구에 대한 메타분석과 일반화. 『미디어, 젠더 & 문화』, 2호, 119~162.
- 전규찬 (1997). 문화연구의 반주변부적 재배치. 『언론과 사회』, 18권, 216~225.
- 주형일 (2008). 직관의 사회학, 나의 사회학 그리고 현상학적 방법.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1호, 77~113.
- 최종렬 (2009). 『사회학의 문화적 전환』. 살림.
- 가라타니 고진 (1998). 송태욱 옮김. 『담구 1』. 새물결.
- 사카이 나오키, 니시타니 오사무 (2009). 차승기, 홍종욱 옮김. 『세계사의 해체』. 역사비평사.
- Agamben, G. (1995). *Mezzi senza fine: Note sulla politica*. Bollati Boringhieri Editore. 김상운, 양창렬 옮김 (2009). 『목적없는 수단: 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 난장.
- Agar, M. (2006). An ethnography by any other name.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vol. 7, No. 4.
- Alasuutari, P. (1995). *Researching culture: Qualitative method and cultural studies*. Sage.
- Ang, I. (2005). Who needs cultural research?. In Leystina, P. (ed.). *Cultural Studies and Practical Politics: Theory, Coalition Building, and Social Activism*. Blackwell, 477~483.
- Baillargeon, N. (2006). *Petit cours d'autodéfense intellectuelle*. Lux. 강주현 옮김 (2010). 『춤스키처럼 생각하는 법』. 갈라파고스.
- Becker, H. S. (1986). *Writing for social scientists: how to start and finish your thesis, book, or article*. University of Chicago. 이성용, 이철우 옮김 (1999). 『사회과학자의 글쓰기』. 일신사.
- Berger, P. L. (2002). Whatever happened to sociology. *First Thing*. October.
- Bergson, H. (1992). *The creative mind: An introduction to metaphysics*. The Citadel Press.
- Blaikie, N. (1993). *Approaches to social enquiry*. Polity Press. 이기홍, 최대용 옮김 (2010). 『사회이론과 방법론에 다가서기』. 한울아카데미.
- Couldry, N. (2000). *Inside culture: Re-imagining the method of cultural studies*. Sage.
- Dilthey, W. (1910).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Subrkamp*. 김창래 옮김 (2009). 『정신과학에서 역사적 세계의 건립』. 아카넷.
- Eco, U. and Sebeok, T. A. (eds.) (1988). *The sign of three: Dupin, Holmes, Peirce*. Indiana University Press. 김주환, 한은경 옮김 (1994).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인간사랑.

- Fischer, E. P. (2005). *Einstein trifft Picasso und geht mit ihm ins Kino oder die Erfindung der Moderne*. Piper Verlag.
- 유영미 옮김 (2010). 『아인슈타인과 피카소가 만나 영화관에 가다』. 들녘.
- Gadamer H. G. (1961). *Wahrheit und Methode*. 이길우 외 옮김 (2000). 『진리와 방법』. 문학동네.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Basic Books.
- Gray, A. (2003). *Research practice for cultural studies*. Sage.
- Grossberg, L. (1997). *Bringing it all back home: Essays on cultural studies*. Duke University Press.
- Gunaratne, S. A. (2010). De-westernizing communication/social science research: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Media, Culture & Society*, 32(3), 473~500.
- Hanson, N. R. (1958). *Patterns of discove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송진웅, 조숙경 옮김 (2007). 『과학적 발견의 패턴』. 사이언스북스.
- Harman, G. H. (1968). Enumerative induction as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Journal of Philosophy*, 65, 529~533.
- Hartley, J. (2006). Read thy self: text, audience, and method in Cultural Studies. In White, M. and Schwoch, J. (eds.). *Questions of Method in Cultural Studies*. Blackwell Publishing.
- Hempel, C. (1966).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Prentice Hall.
- Huang, H. (2009). Science as ideology: SSCI, TSSCI and the evaluation system of social sciences in Taiw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10(2), 282~291.
- Judson, H. F. (2004). *The great betrayal: Fraud in science*. Houghton Mifflin Harcourt.
- Kuhn, T.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atos, I. (1970).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Lakatos, I. and Musgrave, A.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atos, I. (1976). *Proofs and refut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atos, I. (1978).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Philosophical papers volume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tner, S. (1999). *The Fate of "Culture": Geertz and Beyo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우영 옮김 (2003). 『문화의 숙명: 기어즈의 문화이론에 대한 발전적 논의』. 실천문화사.
- Paavola, S. (2006). Hansonian and Harmanian abduction as models of discovery.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20(1), 93~108.
- Peirce, C. S. (1992).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ume 1 (1867-1893)*. Indiana University Press.
- Peirce, C. S. (1998).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ume 2 (1893-1913)*. Indiana University Press.
- Peters, J. D. (2006a). Dissemination. In Shepherd, G. J., John, J. S. and Striphos, T. (eds.). *Communication As...: Perspectives on Theory*. Sage.
- Peters, J. D. (2006b). Raymond Williams's culture and society as research method. in M. White and Schwoch, J. (eds.) *Questions of Method in Cultural Studies*. Blackwell Publishing.
- Popper, K. (1959).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Routledge. 박우석 옮김 (1994). 『과학적 발견의 논리』. 고려원.
- Prigogine, I. (1996). *La fin des certitudes*. 이덕환 옮김. (1997). 『확실성의 종말: 시간, 카오스, 그리고 자연 법칙』. 사이언스북스.
- Reichenbach, H. (1938). *Experience and prediction: An analysis of the foundations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ichertz, J. (2010). Abduction: the logic of discovery of the grounded theory.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1(1).
- Sebeok, T. with Sebeok, J. U. (1981) "You know my method": A juxtaposition of Charles S. Peirce and Sherlock Holmes. In Sebeok, T. *The play of musement.*, Indiana University Press. 17~52.

- Sewell, W. H. Jr. (1999). 기어즈, 문화체계, 역사: 공시성에서 통시성으로. 김우영 옮김 (2003). 『문화의 속명: 기어즈의 문화이론에 대한 발전적 논의』. 실천문화사. 81~118.
- Silverstone, R. (1999). *Why study the media?* Sage. 김세은 옮김 (2009).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Snow, C. P. (1965). *The two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오영환 옮김 (2001). 『두 문화』. 사이언스북스.
- Strauss, A. C. & Corbin, J. M. (eds.) (1997). *Grounded theory in practice*. Sage.
- Venkatesh, S. (2008). *Gang leader for a day*. 김영선 옮김 (2009). 『괴짜 사회학』. 김영사.
- Wallerstein, I. (2004a). *The uncertainties of knowledge*. Temple University Press. 유희석 옮김 (2007).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 Wallerstein, I. (2004b).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Duke University Press. 이광근 옮김 (2005).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당대.
- White, M. and Schwoch, J. (eds.) (2006). *Questions of method in cultural studies*. Blackwell Publishing.
- Williams, R. (1958).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Columbia University Press.
- Williams, R. (1961). *The long revolution*. Broadview Press. 성은애 옮김 (2007).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 Williams, R. (1985).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김성기, 유리 옮김 (2010). 『키워드』. 민음사.
- Wuisman, J. J. J. M. (2005).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in critical realist social scientific research. *Journal of Critical Realism*. 4(2), 366~394.

(투고일자: 2011.2.28, 수정일자: 2011.4.22, 게재확정일자: 2011.4.30)

ABSTRACT

Abduction as Methodology of Cultural Studies

Hee-Eun Lee*

What are the meanings of abduction as a methodology of Cultural Studies? By contextualizing Charles Sanders Peirce's logic of abduction in the discipline of Cultural Studies, I explore the epistemological discussion on the modern scientific research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s. Abduction is a kind of logical inference, which is often associated with guessing or intuition. Peirce's method of abduction and Cultural Studies' contextual formation in effect address an alternative methodology to positivism. Criticizing the modern Eurocentric structure of knowledge construction, I suggest that the virtue of abduction, as a logic of discovery, should be re-discovered in the context of Cultural Studies. Abduction holds important lessons for Cultural Studies as well as social sciences in general because of its focus on intuition, empathy, and intellectual collaboration. Through its elaboration of the logic of abduction, Cultural Studies is able to maintain not only its epistemological ground but also its methodological communicability.

Keywords: Cultural Studies, Abduction, Methodology, Scientific Positivism, Charles Sanders Peirce, Logic of Discovery, Intuition, Empathy, Intellectual Collabor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Chosun University